

8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2.8.23.(화) 오후 3시,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권혁남 위원장, 문해주, 정의식,

정경모, 김희중, 천경숙 6인(박찬재, 이현숙, 유환익, 김세한 위원 서면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1. 다음 회의 일정

- 9월 일정 : 9월 27일(화) 오후 3시

■ 주요 내용

▲ 권혁남 위원장

- 재난사고 취재 및 보도 가이드라인, 최근 장마비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장마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취재 및 보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도하여야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보도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족, 특히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유가족들의 사생활보호를 유지하면서 어느 선까지 보도하여야 하는 가 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명사고 시 유가족의 얼굴 노출, 극도의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 촬영 및 보도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긴급 보도 시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를 클릭하면 뉴스 화질이 너무 떨어진다. Video Quality가 최고 540픽셀에 불과하다. 경쟁사인 YTN은 720픽셀(HD)이다. 요즘 웬만한 동영상은 1080픽셀(FHD)인 것에 비하면 화질이 너무 떨어진다. 고화질 영상에 익숙한 시청자들이 저화질로 저장된 뉴스를 다시보기 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만든 재난재해 보도 준칙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 10월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만들어 놓은 방송 재난관리 기본계획, 이것을 우리 TV사정에 맞춰서 약간 수정해서 사내 게시판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취재라든가 영상편집부, 뉴스총괄부에 관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는 숙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끔씩 보면 프라이버시 보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뉴스총괄부장이나 PD들이 발견하는 즉시 얘기를 해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2019년에 홈페이지 재구축을 하면서 360픽셀 480픽셀 540픽셀 세가지로 홈페이지하고 모바일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YTN의 720픽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당시에는 이제 스토리지, 트래픽 등 비용 요인 모바일 환경에서의 시청자들의 데이터 비용 등을 감안해서 만든 건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많이 상황이 변한 것 같습니다. 비용도 드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디지털 분야를 강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저희보다

YTN은 디지털 분야를 많이 앞섭니다. TV수상기 시청률은 저희가 앞설 때도 많이 있지만 디지털 분야는 저희는 아직 YTN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어요. 저희도 한정된 재정 여건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디지털 분야를 확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이런 인프라도 업그레이드 해서 모바일 쪽에서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해주 위원

- <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 관련 > 최근 몇 달 동안 '누리호' 발사 성공(6.21)과 허준이 교수의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수상(7.5)에 이어 달 탐사선 '다누리'도 성공적으로 발사(8.5)되어 과학기술계의 쾌거는 물론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누리'는 미국 스페이스X사의 발사체, '팰컨9'에 의해 발사된 후 약 40분 후, 무사히 발사체에서 분리되었고, 발사 92분 후 호주 캔버라주 지상국과 교신이 이루어졌으며, 달을 향해서 순항 중에 있습니다. '다누리'는 4~5일 만에 달로 곧장 가는 방법도 있지만, 연료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발사 후 최대 156만km 떨어진 심우주까지 날아갔다 다시 지구 중력을 활용해 달 궤도로 이동하는 긴 여정을 택했습니다. 4개월여의 긴 여정 끝에 오는 12월 31일, 목적지인 달 상공 100km 궤도에 진입하면 '다누리'의 임무는 시작됩니다. 이렇게 '다누리' 운용이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에 이어 달을 직접 탐사한 세계 7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상 7-8월 중 '다누리' 관련 보도내용 요약) '다누리' 관련 보도는 발사 며칠 전부터 연합뉴스tv의 모든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앵커 및 취재기자 단순보도, 출근길인터뷰, 특파원 보도, 그래픽뉴스, 영상구성, 전문가 초청 대담, 뉴스특보를 통한 현장 생중계 등)을 동원하여 시청자들에게 신속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노력을 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D-3일(8.2)부터는 우주 전문가와 출근길 인터뷰(7.28/8.2)를 통해서 다누리 발사 연기, 사전 준비과정, 임무, 발사의 의미 등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답변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D-1일에는 미국 플로리다 현지 특파원을 통해 발사 준비상황을 보도하고 매 뉴스 프로그램마다 헤드라인으로 보도하고 그래픽뉴스, 영상구성, 뉴스프라임(전문가 초청 대담) 등을 통해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알기 쉽게 알리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D-0(발사 당일)에는 뉴스특보(07:39~09:00)로 편성하여 전문가 2명의 해설과 함께 발사 현장(미국 플로리다)과 연결하여 발사 장면을 생중계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장면을 전해주었고, 이후 9시 50분에 다시 다른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사 관련 색다른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매 프로그램마다 헤드라인 뉴스와 함께 영상구성, 현장연결을 통해 '다누리가 달 전이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출근길인터뷰'를 '다누리' 개발을 총괄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자나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으면 더 현실감 있고 생생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제안(서울이 아닌 대전에서 출근길 인터뷰 진행)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제약(생중계, 인력, 예산 등)이 있어 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기술패권 관련 >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 10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고 향후 5년 동안 2,80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고, 일본은 삼성에 대항하기 위해 반도체기업에 9천억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관련 계획을 발표(7월)하여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본

격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주도로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한-미, 한-중 등 국제관계 속에서 국익에 입각하여 선택을 해야 하는 절박한 시기입니다. (이상 7-8월 중 '반도체' 관련 보도내용 요약) 최근 전개되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뉴스를 여러 가지 내용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준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관련 내용에 대해 해외동향이나 정부나 기업의 대응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단편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세계 1등기술 습득 여부가 국가흥망성쇠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여건이 된다면 향후에는 국내외 동향을 심층 취재하고 분석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내용의 종합 보도를 연합뉴스TV에서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다누리 발사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역점을 뒀던 것은 기존 전문가 대담 같은 경우는 늘 해왔던 거고요. 워싱턴 특파원을 플로리다 현지로 보내서 전날부터 현지에서 생방송을 하도록 기획했던 것이 이전과는 다른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워싱턴 현지 특파원이 노력을 많이 해줬습니다. 말씀하셨던 출근길 인터뷰를 통한 대전 항우연에서의 인터뷰 진행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 전날 내려 보내서 대전 항우연 관계자를 인터뷰했다면 더 돋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시도해보겠습니다.

- 칩4 동맹 관련해서 단편적으로 보도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어차피 칩4 동맹이 이제 구체화되지 않겠습니다. 중국의 견제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저희가 연합뉴스TV 스페셜이나 뉴스 프리즘 같은 기획 보도 형식을 통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 정의식 위원

- 7/24 요즘 Hot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영향 때문인지 모르지만, 오티즘(자폐증:Autism)화가인 오티스트에 대한 보도를 통해 오티즘 환자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를 일회성이 아니라 드문드문 잊혀질만 하면 한번씩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화가뿐만이 아니라 음악 예술 여러 분야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다운 증후군이 있는 환자들만 영화도 만들고 외국에서는 드라마도 만들고 직접 다운증후군 중에 있는 환자들끼리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문제점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7/25 삼성전자의 3나노 개발이 TSMC 보다 6개월 빠르게 선점한 것에 대한 보도와 그에 따른 설명 및 외국 상황 등에 대한 보도가 초보자도 알기 쉽게 잘 설명되어 좋았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상황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메모리와 비메모리에 대한 차이, 설명 등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설명은 있었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경쟁력(위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도 있었으면 합니다.

- 7/31 장애인 25만명에 대한 장애인별 특성과 세부적인 분석에 대한 보도와 그들 개개인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국가차원에서의 제도적 예산 문제 등 해결 방안 및 체계적인, 장애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관심, 인력, 예산)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에 대한 보도가 10여분간 상세하게 보도하여, 취재진들의 많은 관심어린 노력이 돋보여서 좋았고, 가끔 주기적으로 보도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상시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번트 증후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으나, 좀 더 자세한 설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폐아등 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두고 있는 부모들의 소원이 "하루만이라도 아이들보다 더 오래살수 있기를.."이라는 마음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인터뷰 중 FOMC란 약자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궁금하였습니다. 간략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의 약자로 풀어보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한다.

- 8/6 봉사하면 젊어져요. 라는 보도를 보며, 발달 장애인들과 같이 어우러져 봉사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음

- 홍수 피해로 인한 보도가 홍수 당일과 다음 날에는 '특집'으로 보도하는 듯 하루 종일 보도하였지만, 그 이후 이재민들에 대한 추가 보도가 거의 없는 것 같아 조금 아쉬웠다. 가끔씩은 그분들에 대피시설(체육관 등)에서의 생활 등에 대한 추가 보도를 통해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사실 전문적인 용어가 어렵죠. 한두 마디로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리포트 1분 30초 길어봤자 맞춰야 1분 40초 정도 되는 분량에서 알아듣기 쉽게 짧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냥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두 문장이라도 덧붙여서 시청자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인터뷰 중에서 FOMC라는 약자가 나가는데 설명이 없다는 것은 인터뷰 FOMC라고 그냥 발음을 그냥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녹화였다면 사실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서 FOMC라든가 이런 용어는 자막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방송이었다면 저희가 FOMC를 찾아내서 순발력 있게 자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녹화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 홍수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에 대한 보도가 당일 이후에는 한참 동안 없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주 살피면 그분들한테도 격려가 되고 또 아마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을 텐데요. 며칠이 지나서야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보는 리포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분들 상황을 살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정경모 위원

- 청와대 활용방안 놓고 부처 간 다툼 벌어져..소통과 협력 속에 바람직한 활용방안 찾아서 새로운 문화강국의 시작이 되길.. "청와대를 복합문화단지로...이건희 컬렉션도"...문체부 업무보고(2022.7.21.) [뉴스포커스] '청와대의 대변신...국민의 복합예술문화공간으로'(2022.7.22.) 거대한 미술관으로?...논란의 중심, 청와대의 운명은(2022.7.31.) 청와대 앞뜰 소파 광고 논란...문화재청 "물랐다"(2022.8.9.) 100일 맞은 청와대 개방...권력의 심장에서 국민품으로(2022.8.17.) 지난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방된 청와대를 국가의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청와대 건물들은 미술관이 되고,

건물 밖에 야외 전시장이 들어서는데 구상도 포함돼 있는데요. 박 장관은 개방된 청와대를 예술과 자연, 역사를 품은 복합문화단지이자, 국가 상징물로 만들겠다 구상을 보고했습니다. 청와대 본관과 관저, 춘추관 등 기존 건물을 미술품 전시장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2층 본관 중 1층의 로비와 복도, 세종실, 충무실, 인왕실이 전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이것은 베르사유의 궁전처럼 건축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전시하는 개념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영빈관의 경우 10m 층고를 고려해 고품격 전시관으로 재구성, 청와대의 600여점 소장 예술품과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의 일부를 전시한다는 구상입니다. 옛 본관 터는 역대 대통령 유가족의 자문을 받아 대통령들의 자취와 리더십을 느낄 수 있는 스토리텔링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야외 공간엔 경내 수목원인 녹지원과 함께 조각공원이 들어서고 각종 공연도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보고됐습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청와대 공간이 국민의 복합문화 예술 공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 소장품뿐 아니라 좋은 작품들을 많이 전시해 국민이 쉽게 감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날인 7월 22일에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뉴스포커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청와대 활용방안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문화 발전 지원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어떤 공간으로 만들지, 활용 방안을 두고 적지않은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 부처 사이 혼선까지 노출되며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미술계와 일부 관광업계는 반색했지만, 정작 담당 부처 내부에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문화재청의 정책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역사성을 고려한 조사나 연구가 충분치 않다"며 우려를 표했고, 문화재청 노조도 "거대한 궁전으로 되돌리는 퇴행"이라 반발했습니다. 문체부는 "정부 내 혼선은 없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말을 아끼던 문화재청장이 나서며 되레 논란을 키웠습니다. "부처간 논의와 준비가 부족했다"고 시인하며, 관리 책임을 벗어났으면 하는 속내까지 드러낸 겁니다. 위와 같은 논란 속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서울시청이 청와대를 서로 관리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청와대를 베르사유 궁전처럼 꾸미겠다는 계획에 미술계와 문화재계가 분열하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일단 문체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원형을 유지하되 문화예술과 역사를 품은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한국예총은 지난 8월 4일, 이번 청와대 고품격 복합문화단지 조성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문화강국으로 우뚝 서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그간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던 청와대를 '문화번영'의 기틀을 다지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시작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향후 예술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선보여지기를 바라고, 청와대 조성 계획의 추진과 운영에 현장 예술인들의 직접적인 참여도 요청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청와대 권역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조사가 우선돼야 제대로 된 청사진이 나올 수 있다고 조언하는 상황입니다. 고려시대부터 1천년간 이어진 최고권력의 공간, 청와대 앞에 놓인 과제는 보존과 활용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관련 정부 부처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력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복합 문화 예술단지 조성 계획' 과 관련하여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청와대 활용방안이 도출되고 체계적으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청와대의 새로운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졸속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언론 본연의 견제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습니다. 복합 문화예술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 부처 간의 이견이 노출돼 있는 상태고 국민의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충실한 활용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 김희중 위원

- 집중 호우가 계속되면서 연합뉴스TV가 사실상 실시간 재난방송 역할 담당, 8월 수도권과 중부권에 집중된 집중호우 안타까운 인명사고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연합뉴스TV에서는 집중 호우와 관련된 일기예보에서부터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들을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뉴스 꼭지(8.9일, 뉴스특보, 폭우 피해 줄이려면... 기사 등)를 편성해 송출함. 또한 8.8일부터 거의 실시간으로 수해 피해 현장을 발 빠르게 취재해 전했고 이 과정에서 기자의 리포팅(8.10일, 아수라장된 남한산성.....강창구 기자)들이 매우 꼼꼼하고 섬세해 현장의 피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드러나기도 함, (8.12일자, 수해지역 피부질환, 전염병 조심) 수해 피해 복구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봉사자들이 다치거나 안전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 리포팅 한 것도 매우 인상적이었음,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현장인 반지하 피해 문제는 서울시와 정부의 대책발표 뉴스는 물론 (8.16일, 반지하 70만명 어디로..) 현장의 재구성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도 국민과 함께 하는 연합뉴스TV라는 생각을 가짐.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과 관련해서 현장성 있는 뉴스의 제공에서부터 재난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의 안전 도모, 재난 이후 재난 대응 등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 제시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도 제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음.

-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점검, 경제 분야인 Y노믹스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8.16일자 감세·규제개혁 100일...여건 녹록찮은 'Y노믹스' 제하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간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고 경제팀에서는 경제활력 회복을 강조했다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경기침체란 복합위기를 만났다"고 전하고 이에 새 정부가 감세와 규제 완화를 처방하고 기업인 사면을 통한 기업가정신 복원 그리고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과 같이 과감하게 공급 확대로 전환하는 등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진단함.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자는 전문가의 말을 빌려 "단기적인 경기 관리에는 비교적 충실한데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Y노믹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그러면서 기자는 윤석열 정부 Y노믹스의 성패는 위기 극복을 넘어 경제에 대한 장기비전의 제도화와 실행에 달려있다고 날카롭게 꼬집고 있음. 향후 장기 비전과 관련한 후속기사를 뉴스프라임 등에서 다뤄 정부가 보완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 생각.

▲ 추승호 보도본부장

- 보도채널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재난방송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국민 행동 요령을 미리 준비하고 안전상의 각종 유의점 이런 것들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면 급하게 쓸 수 있고 아마 시청자들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홍수 때에도 그런 여러 가지 홍수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도를 했지만 아무래도 홍수가 난 다음에 현상을 보여주는 게 제일 급하기 때문에 행동요령에 대한 보도는 조금 늦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말씀하

신 것 참고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다 보니까 아마 새 정부가 경제 비전을 준비하고 제시하는 데 취약한 면이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 비전을 준비하는 것이 향후 우리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지 전문가의 견해 등을 토대로 해서 수시로 정부에게 촉구하는 방식으로 보도를 하겠습니다.

▲ 천경숙 위원

- 건설기계도 민식이법 적용...스쿨존 사고 내면 가중처벌, 뉴스센터 13 2022-08-12 13:36:39
굴착기나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도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는 내용으로 방송으로 법무부는 오늘(12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가중 처벌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도 시청자가 듣기에 깔끔했고 그래픽 뉴스 또한 시청자가 보기에 적절한 자료화면을 사용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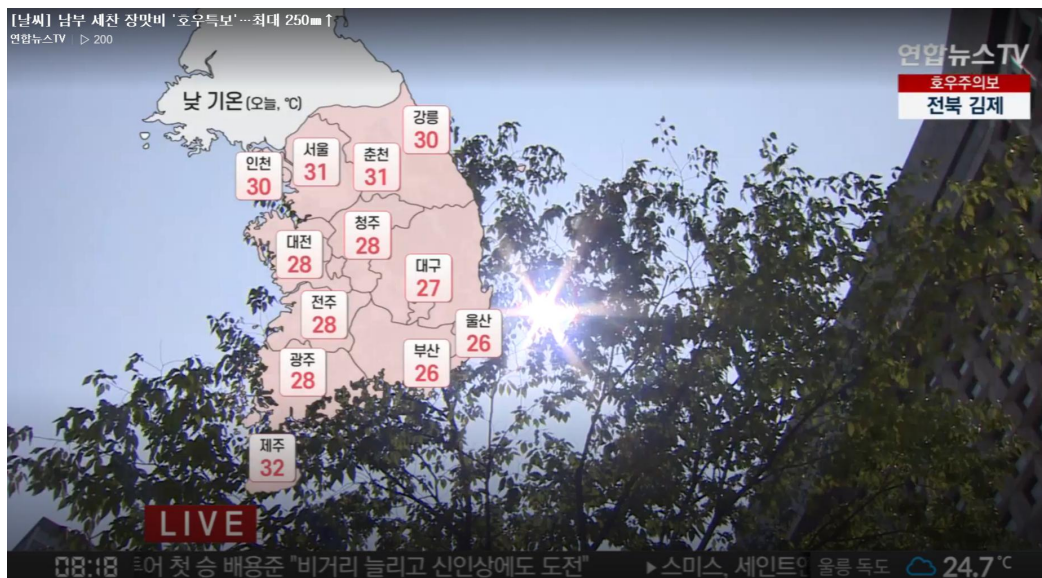
-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을 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연합뉴스TV에서 지속적인 방송을 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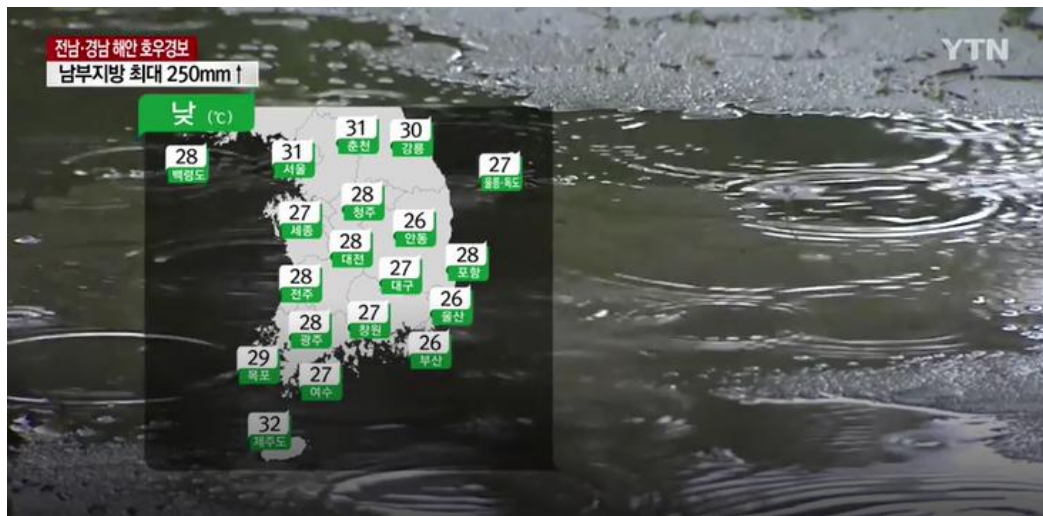
▲ 추승호 보도본부장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확대는 모든 운전자에게 중요한 개정 사항입니다.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해보겠습니다.

▲ 박찬재 부위원장(서면제출)

<07. 18 남부 세찬 장맛비 '호우특보... 최대 250mm↑ > 날씨 방송이 계속 일신우일신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시청자의 한사람으로써 장마기간동안 출근길, 퇴근길 등 날씨에 더욱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7월 18일 날씨뉴스 출근길인 오전 8시18분경에 <07. 18 남부 세찬 장맛비 '호우특보... 최대 250mm↑ > 동 내용은 출근길 모든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지역 시청자들의 정보제공을 보면, 전체날씨 낮기온 12곳만 표시함, 두터운 시청자 저변을 확대하는 차원 및 정보제공 차원에서도 각 지역 도청소재지 정도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도청소재지 창원(인구100만넘어서 특례시편입), 경상북도 도청소재지 안동은 누락되었음. 그러나 동시간대 YTN에서는 지역 19곳 표시, 창원(경남도청소재지)과 안동(경북도청소재지), 울릉도 독도 등 디테일 있게 YTN은 연합뉴스TV에 비해 CG제작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관련화면 CG제공과 함께 생방송으로 보도하고 난 이후에도 그 내용을 자막을 통하여 계속 내보냄, 날씨보도는 일관성 있게 전국 광역자치단체인 도청소재지 정도는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시청자들이 소외감이 느끼지 않게 보도해주시기 바람, 상기와 같은 시민들의 생활 밀착형 정보는 뉴스제공이후에도 출퇴근 시에는 자막을 통하여 관련내용을 지속적으로 정보제공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첨언하자면 긴급하고 중요한 날씨는 뉴스에서 제일 먼저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를 들면 휴일 소나기 보도의 경우 제목 소개시어나 실제 보도에서도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청자가 알고 싶어하는 뉴스를 '시청자 눈높이'에서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더 사랑받는 연합뉴스TV가 되었으면 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날씨 지도에 표기하는 지역 수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확대했습니다. 여러 곳을 표기하면 좋지만, 너무 많으면 시청자들이 한눈에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시성이 떨어지는 거죠. 2016년에는 13곳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부터는 26곳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1장으로만 처리하면 한눈에 보기 어려워 2장으로 나눠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지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두 번째 지도에는 인구 수 1,2위 도시와 도청소재지, 중요도서를 넣고 있습니다.

▲ 이현숙 위원(서면제출)

- 가족 돌보는 청년들 '영케어러' 폭염엔 이중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영케어러의 어려움을 다루어 좋았습니다. 어린 청년들이 부모 혹은 조부모의 부양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건 문제 있으며 기사에서 보도한 것처럼 전국에 30만명 정도 있을 것이라 추

산하고 있고 정확한 통계가 없다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결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어 주면 의미있을 것 같습니다.

- 우영우는 판타지, 김정훈은 현실...고래점프 해법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것, 장애인의 사랑, 아동의 행복추구권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소재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처한 현실,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장애인 이동권과 복지, 사회적 돌봄 등의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사로 구성하여 좋았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를 계기로 한 뉴스프리즘 기획은 비장애인이 받는 일반적인 사회적 서비스와 권리를 장애인도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는 취지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향후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현실 이슈를 계속 추적할 계획입니다.

▲ 유환익 위원(서면제출)

-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현황 및 대책 특집방송 마련 제안, 지난 8월8일 오후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8월은 국민모두가 정신없이 보냈음. 서울의 경우 단 며칠만에 누적 강수량 420mm에 달해 100여년만에 찾아온 물폭탄이었음. 이로인해 사망사고, 재산피해 등 엄청난 피해가 초래되었음. 연합뉴스TV도 집중호우 현황, 재산피해 현황 및 사례, 정부대책 등을 보도하기 위해 연일 현장을 찾아 생생하고 최대한 빠르게 보도하였음.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호우 현장에서 생생한 보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림. 한 가지 추가하여 제안드릴 사항은 연합뉴스TV특성상 신속하고 현장감있는 보도가 생명이 겠지만 보도내용이 대부분 현황을 보도하는 내용에 그치고 있어서 원인 및 대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후속보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예를들어 금번 집중호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강남역 사거리 부분은 호우가 발생하면 항상 피해가 나타나고 조금이라도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면 그 피해규모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보도의 경우에도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매번 사고현장의 스케치가 집중적으로 보도됨, 따라서 현황 및 문제점에 그치지 말고 상습침체가 왜 일어나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이 어떻게 추진 되어 왔는지,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종합적인 대안에 대해 전문가, 정부 등 의견을 제시하는 심층기획 프로그램, 예를들면 뉴스프리즘 등에 집중 다루어 주면 좋겠음

▲ 추승호 보도본부장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강남지역의 구조적인 문제점, 수해 대비 시설의 취약성 등을 다뤘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기획보도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세한 위원(서면제출)

- [현장의재구성] 시의성 있는 이슈에 대한 생생한 현장 화면 편집 돋보여



하루 이틀 간격으로 보도되고 있는 [현장의재구성] 코너는 방송의 특성을 살려 최대한 현장 화면 위주로 편집·보도돼 충분히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코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8월 10일 보도된 <폭우에 속수무책...또다시 쑥대밭 된 강남> 기사는 서울에 집중 폭우가 쏟아진 8월 8일 저녁 강남역, 삼성역 등 다양한 침수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 대체 어느 정도 호우 피해가 생겼는지를 궁금해 하는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었던 기사였습니다. 빗물이 50cm 이상 차오른 도로를 헤치고 달리는 자동차와 빗물이 차량 내부까지 들어온 버스, 물줄기에 곧 솟아오를 듯한 위태로운 맨홀 뚜껑, 시민이 실제 차량 내부에서 본 폭우현장 모습과 실제 시민들이 나눈 대화 내용, 그리고 비가 그친 뒤 도로에 여기저기 내버려진 자동차들 모습까지 담겨 있어 취재 기자와 편집자가 많은 품과 공을 들여 제작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8월 12일 보도된 <호기심에 한 번?...지옥행 급행열차 탄다> 기사 역시 약통 안, 전기포트 뚜껑, 캐리어 상판 등 실제 공항에서 세관에 적발된 다양한 마약 밀반입 수법들을 보여줘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그래픽뉴스] 시각적 효과를 보다 극대화한 이미지 활용 고민했으면



반면, 역시 짧게는 하루 만에, 길게는 4~5일 만에 보도되고 있는 [그래픽뉴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용되는 그래픽들이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그래픽 자료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보도에 활용되는 상당수 그래픽들에서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파워포인트 (PPT) 자료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8월 11일 보도된 <월드컵 D-100> 기사나 8월 12일 보도된 <AI 홍수 예보>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나 통계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픽적 요소를 통해 뉴스를 전달하기보다는 단순히 기사 내용을 글로 이미지화한 뒤 진행자가 그대로 읽는 모습에서 다소 지루함이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AI 홍수 예보> 기사에서는 그래픽 대신 하천홍수지도가 오랜 시간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코너 제목이 [그래픽뉴스]인 만큼 독자들이 제목을 보고 기사를 클릭할 때 기대하는 그래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살짝 못 미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문장의 글로 뉴스를 전달하는 [카드뉴스]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제목 그대로 공들여 직접 제작한 그래픽이나, 다른 기관에서 만든 적절한 그래픽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승호 보도본부장

카드뉴스의 그래픽이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관계나 통계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래픽의 취지인 만큼 텍스트를 줄이고 시각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겠습니다.